

출판을 위해 기업이 할 일

이용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업의 역할이 거론된 것은 8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은 수출과 성장에 힘을 쏟느라고 문화예술을 더듬어볼 여유를 갖지 못했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계속 증폭되어 왔고 기업 스스로도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83년부터 민음사에서 간행된 '대우학술총서'가 현재 2백권에 이르고 있는 것이나, 뿌리깊은 나무의 '민중자서전'에 대한 미원그룹의 지원, '한반도의 슬픈 소리'나 '산조선집'의 음반 및 해설집에 대한 한국 IBM의 지원, 그리고 고려대출판부의 학술연구총서에 대한 아남산업의 지원 등이 출판계에 대한 기업의 대표적 지원사례에 속한다. 현재 이외에도 동화은행, 대한화학기계, 금성컴퓨터 등이 관련전문서 및 한국도서의 출판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어 자체 출판하는 경우도 있다.

출판에 대한 기업의 지원은 인세지불, 일정부수의 구입, 출판비보조, 직접출판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떤 방법이든 기업의 출판지원을 통해 그 출판물이 학계 및 일반독자들에게 대량 배포되고 읽혀진다는 것은 기업 이미지 고양에 대한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겠다. 그러나 사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갖는 기업조차도 그것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 아닌 어떤 시혜적 입장을 가졌던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은 지난 10여년 동안 상당부분 수정되어 기업과 문화예술은 상호 보완 협력하는 관계로서 마치 수레바퀴의 양축과 같아서 어느 한 쪽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왜소할 경우 수레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문화예술은 정신적인 것에 물질적인 요소가 융합되는 가운데 생성발전되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내용이 문화예술의 거대한 용광로 안에서 확대 재생산될 때 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생리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며 문화예술은 돈을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신적 소산을 확대해나가는 것이지만 양자가 서로 협력관계를 다질 때 사회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출판은 연극이나 무용, 음악 등 일회적인 공연예술과는 다르게 그것이 종이와 활자를 통해 영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지원을 하는 데 매력을 가지게 된다. 대우합창단이나 럭키금성무용단 등 직접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연단체들도 있었고 특정 공연예술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출판지원만큼 계속되는 경우는 없다. 물론 지원하는 기업의 숫자나 지원액은 아직도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출판문화는 지원의 성과도 가시적이고 영구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분명히 더 낫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정신문화를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출판문화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뉴스	2	후기산업사회의 출판물저작권·외
표지인물	4	대하소설 「먼동」 전5권 완간한 홍성원씨
리뷰	6	한국 대하소설의 문학사적 흐름
서평	8	최학근 「국어방언연구」 — 천시권 한준상 「한국교육의 갈등 구조」 — 문용린 9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 한승홍 최동현 「한국판소리연구」 — 천이두 10 이두호 외 「빈곤론」 — 정건화 바루치 「정치철학」 — 강성위 11 아이젠슈타인 「인쇄출판문화의 원류」 — 이중환 12 인권환 편 「홍부전연구」 — 정규복 김상렬 「섬은 기다리지 않는다」 — 구모룡
확대서평	13	이기백 외 「현대한국사학과 사관」 — 조동걸
출판취재	14	정치의 계절에 쏟아지는 선거관련도서 15 '옥중기' 출판 붐 이룬다
리포트	16	강원 및 충청지역 서적상 간담회 '90 「인권보고서」에 나타난 출판의 자유
이 책 그 사람	18	「영화에 대하여 알고 싶은 ...」 낸 구회영씨 「인간경영학」 낸 장만기씨 19 「法속에서 詩속에서」 낸 최종고교수 한국에서 제일 작은 책 만든 박임종교수
이색출판	20	산업사회와 심리학이론의 만남 한작가 집중조명한 단행본형 연속기획
해외취재	21	프랑스상륙 교두보 마련한 한국문학 일본서 인기고는 젊은 작가 장정일씨
컬러취재	24	제2회 세계의 쯔쌀책 전시회 지상중계
해외출판	26	독일출판의 자문역 취리히에이전시 — 이희재
세계의 책	28	책으로 보는 명화의 파노라마·외 30 이달의 청소년도서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김홍진

편집자의 말

서점에 가보면 대하소설이 대하를 이루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울들 어 갑작스레 부각된 현상은 아니지만, 그간 문단과 독자들의 주목을 끌어왔던 대하소설들이 속속 책으로 묶여 나오면서 대하소설 출간이 일종의 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5권의 「먼동」을 완간한 홍성원씨는 그같은 대하소설의 문학사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저력과 독심의 증견작가이다. 그를 표지인물로 내세우고, 김남천의 「대하」 이후 한국대하소설 60년사를 정리한 기사를 따로 마련했다.

이와함께 이번호에는 프랑스 독서가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작가들에 대한 佛 리베라시옹지의 특집기사 전문을 번역 게재하는 한편, 이웃 일본의 「新潮」지에 작품이 소개되면서 아사히신문의 사설로까지 다루어진 젊은 소설가 장정일씨의 소식도 함께 전한다.